

# 친환경차 인기 타고 7월 후수출액 '역대 최고'

### 첫 50억달러 돌파...전기차 등 5만대 넘어 성장 견인 내수는 3.0% 줄어 감소세 여전...생산량은 9.1% ↑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량이 처음으로 5만대를 넘어지면서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다만 내수는 수입차 판매량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생산량은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소폭 늘었다.

◇7월 수출액 월 사상 최고치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3% 증가한 51억4천만달러(약 6조7천128억원)에 달했다.

월 수출액이 50억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으로, 2014년 12월 이후 7년7개월만에 세운 최고 기록이다.

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

환경차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 중 친환경차 비중은 28.6%로 전년 동월 대비 6.4%포인트(p) 늘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량은 22만3천633대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월 수출량이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2020년 3월 이후 28개월만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선적 지연된 물량이 이월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두 배로  
7월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한 5만4천222대, 금액은 50.6% 늘어난 14억7천만달러로 모두 1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친환경차 월 수출량이 5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각각 3만대와 2만대 선을 돌파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 이후 11개월 연속 1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6억7천만달러)은 전년보다 60.9%, 전기·수소차 수출액(7억3천만달러)은 68.4% 증가해 각각 3개월과 7개월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

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7천735대로 역대 7월 중 최대였다.

연료별로 보면 전기차(1만4천708대)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내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2만1천552대)와 수소차(573대)는 각각 4.6%와 16.9% 늘었다.

◇내수 판매 3.0% ↓...생산은 9.1% ↑  
지난달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줄어든 14만3천293대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수입차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7월보다 13.8% 적은 2만1천441대에 그치

면서 11개월 연속 판매량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12만1천852대였다. 현대차(-5.9%), 한국GM(-15.7%), 르노코리아차(-14.1%)는 내수 판매량이 줄었고 기아(6.6%)와 쌍용차(7.9%)는 늘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32만4천668대를 기록했다.

현대차(3.4%), 기아(9%), 한국GM(17.4%), 쌍용차(34%), 르노코리아차(39.7%)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생산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에서 일본 도요타그룹과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전 세계 3위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글로벌 순위 상승을 견인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 중인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 <현대차·기아 제공>

## 현대차그룹, 올 상반기 판매 첫 '글로벌 빅3' 진입

### 도요타·폭스바겐 이어 3위...반도체 수급난 영향 덜 받은 덕분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에서 전 세계 3위 완성차그룹 자리에 올라섰다.

15일 각 완성차그룹의 IR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올해 1-6월 글로벌 판매량은 329만9천대로, 일본 도요타그룹(513만8천대)과 독일 폭스바겐그룹(400만6천대)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프랑스 르노

와 일본 닛산·미쓰비시가 결합한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314만대),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이 합병한 스텔란티스그룹(301만9천대), 미국 GM(284만9천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347만5천대를 팔아 5위, 지난해 연간으로 따져도 666만7천대로 5위였지만 순위가 2계

단 뒤였다.

특히 5위에서 3위로 치고 올라간 것은 미국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5위를 차지한 2012년 이후 12년만이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3위에 오른 데는 우선 차량용 반도체 공급현상으로 인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역설적으로 한몫을 했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판매 감소폭(5.1%)이 다른 완성차 그룹의 감소폭에 비해 적었다는 뜻이다.

다른 그룹의 판매 감소폭은 도요타 6%, 폭스바겐 14%, 스텔란티스 16%, 르노-닛산-미쓰비시 17.3%, GM 18.6% 등이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늘고 친환경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 전략이 주효한 것도 글로벌 순위 상승의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우선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반응이 뜨겁다. 제네시스의 경우 올 상반기 미국에서 2만5천668대가 팔려 반

기 기준 최다 판매기록을 새로 썼다.

또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5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만7천여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EV6를 1만대 이상씩 판매한 덕분으로,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출시되면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 전동화 전환 등 전례 없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현대차그룹 특유의 저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美에 '로봇AI연구소' 설립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래차 시대 신속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위해 국내에 '글로벌 SW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고도의 AI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사는 로봇 AI 연구소에 총 4억2천4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연구소 소수 지분에 투자한다.

로봇 AI 연구소의 법인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가 검토되고 있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마크 레이버트가 최고경영자 겸 연구소장을 맡아 우수 인재를 조속히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20년 444억 달러 수준의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2%를 달성해 1천772억 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로봇 AI 연구소는 로보틱스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로봇 기술의 범용성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개발 체계 조기 전환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소프트웨어 역량 개발을 주도할 '글로벌 SW 센터'도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기수회기자

## 반도체난에...1억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량 '주춤'

### 전체 판매량 대비 점유율은 증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7월 판매된 수입차 15만2천432대 중 1억원 이상 수입차는 3만

9천399대로 지난해 동기(3만9천965대)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7월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2만2천951대) 대비 74.1%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입차 브랜드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3사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

소하거나 약간 증가했다.

수입 브랜드 1위인 벤츠는 지난해 1-7월 1만7천524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6천556대로, 아우디는 2천437대에서 2천126대로 감소했다.

반면 BMW는 지난해 1만1천535대에서 올해 1만2천913대로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SUV나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증감을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 SUV는 2만85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천398대)보다 소폭 줄었고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만488대가 팔려 전년 동기(2만470대) 대비 약간 늘었다.

수입차 전체 판매량에서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졌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현상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이면서 1-7월 수입차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17만2천146대)보다 11%나 줄면서 고가 수입차 판매량 감소폭(-1.5%)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7월까지 고가 수입차가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23.2%)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